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김 명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간호지식과 경험, 기술, 확고한 간호가치관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원희(2006)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존감, 자신감 및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학교교육과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통한 전문직 사회화를 통해 주로 향상되는데 간호학생은 과중한 교과과정 이수와 임상실습, 환자에 대한 책임감, 엄격한 행동규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올바른 자아개념 형성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문직 자아개념을 올바르게 형성시켜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강현옥, 2009; Arthur & Randle, 2007).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전공교과, 교수-학생간의 관계,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하혜숙, 2000). 즉, 간호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간호학 및 전공 교과목, 대인관계,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통하여 전공만족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간호학생들이 전공

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향후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므로(Barron, West, & Reeves, 2007) 전문직 자아개념을 포함한 간호학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무만족도(최진, 박현주, 2009)에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고(권영미, 윤은자, 2007),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강현옥, 2009; 서원희, 2006).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전문직관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함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수용성, 또는 자신과 타인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요소이고(Rosenberg, 1965),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Bandura, 1977)이다.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여서 발달과업을 성

주요어 :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호학생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1)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629arin@semyung.ac.kr)

투고일: 2011년 3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23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4일

공적으로 수행하면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또한 개인의 동기화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일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박선영, 2003)과 전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박선영, 2003; 정미현, 신미아, 2006) 이들 두 변수는 간호학생의 전공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 사회적 적응 및 개인-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조절변수임이 확인되었으며(박선영, 200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고(장희정, 양순옥, 이명옥, 2007),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음도 검증되었다(최은영, 김진효, 2000). 그러므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여 전공만족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는 일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로서의 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해봄으로써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하여 간호학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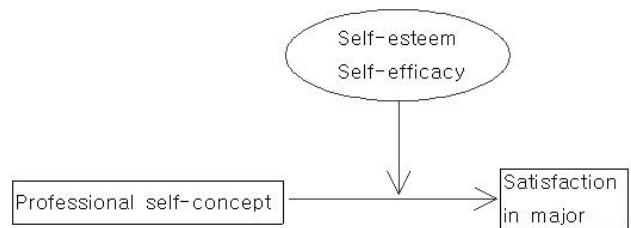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개념 틀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 틀은 <Figure 1>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상호작용하여 전공만족을 높인다는 가정 하에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족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 J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이며, 먼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형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본 연구 목적과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응답한 내용의 비밀성과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고, 본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로부터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은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인적 사유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연구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훈련된 연구보조원 5명이 본 연구자로부터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이 완료된 후 수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총 2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6.0%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2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특히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Arthur, 1995). 본 연구에서는 Arthur(1995)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송경애와 노춘희(199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간호학생에게 적합하도록 7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문항인 7문항은 점수를 역환산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최소 1점에서 최고 4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경애와 노춘희(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 전공만족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하혜숙, 1999),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한 하혜숙(1999)의 전공만족도 척도 중 전공과는 관계없는 학교만족 7문항을 제외하고 교과만족 2문항을 합하여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 하위요인 즉, 교과만족 7문항, 교수-학생 관계만족 3문항, 일반만족 5문항, 사회적 인식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수용성, 또는 자신과 타인의 능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요소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를 전병계(1974)가 번안한 1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정과 하나선(2009)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도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신이 바람직한 기대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Sherer, Maduux, Mercandante, Prentice-Dunn과 Jacobs(1982)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홍혜영(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로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총 17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윤미와 김복미(2008)의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절차에 의하면,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전문직 자아개념)와 종속변수(전공만족도)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수의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R^2 값의 변화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서 각각 평균을 빼는 중심화(zero centering)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변수들의 곱으로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였다(김인순, 2009에 인용됨).

연구 결과

대상자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20명(9.0%), 여학생이 203명(91.0%)이었

으며, 학년은 1학년이 77명(34.5%), 2학년이 58명(26.0%), 3학년이 53명(23.8%), 그리고 4학년이 35명(15.7%)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77명(34.5%), 가톨릭교가 27명(12.1%), 불교가 20명(9.0%), 그리고 기타(없음 포함)가 99명(44.4%)이었다. 학업성적은 평점평균 4.00 이상이 61명(27.4%), 3.00~3.95가 116명(52.0%), 그리고 3.00 미만이 46명(20.6%)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가’가 48명(21.5%), ‘자취’가 44명(19.7%), ‘기숙사’가 131명(58.8%)이었다.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가 110명(49.4%), ‘보통이다’가 104명(46.6%), ‘나쁘다’가 9명(4.0%)이었으며,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가 112명(50.2%), ‘보통이다’가 107명(48.0%), ‘나쁜 편이다’가 4명(1.8%)순이었다. 실습경험은 ‘있다’가 135명(60.5%), ‘없다’가 88명(39.5%)이었고, 입원경험은 ‘없다’가 175명(78.5%), ‘있다’가 48명(21.5%)이었으며, 학과에 대한 만족은 ‘보통이다’가 133명(59.6%), ‘높다’가 78명(35.0%), ‘낮다’가 12명(5.4%)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20	9.0
	Female	203	91.0
Grade	Freshman	77	34.5
	Sophomore	58	26.0
	Junior	53	23.8
	Senior	35	15.7
Religion	Christian	77	34.5
	Catholic	27	12.1
	Buddhism	20	9.0
	No religion	99	44.4
Grade	4.00 over	61	27.4
	3.00-3.95	116	52.0
	3.00 low	46	20.6
Living pattern	With family	48	21.5
	Without family	44	19.7
	Dormitory	131	58.8
Health state	Good	110	49.4
	Moderate	104	46.6
	Poor	9	4.0
Relationship	Good	112	50.2
	Moderate	107	48.0
	Poor	4	1.8
Clinical practice	Yes	135	60.5
	No	88	39.5
Admission	Yes	48	21.5
	No	175	78.5
Satisfaction in major	High	78	35.0
	Moderate	133	59.6
	Low	12	5.4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정도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3.04±.43점으로 의사소통영역이 평균 3.16±.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감 평균 3.12±.53점, 그리고 전문적 실무영역 평균 2.89±.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전공만족은 3.91±.50점으로, 사회인식만족 평균 4.36±.44점, 일반만족 평균 3.91±.73점, 교과만족 평균 3.64±.50점, 관계만족 평균 3.44±.79점의 순이었으며, 자아존중감 평균은 3.84±.59점, 자기효능감 평균은 3.44±.51점을 나타냈다.

<Table 2> Mean scor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maj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N=223)

Variable	Minimum	Maximum	Mean ±SD
Professional self-concept	2.04	3.92	3.04±.43
Professional practice	1.81	4.00	2.89±.44
Communication	1.25	4.00	3.16±.55
Satisfaction	1.71	4.00	3.12±.53
Satisfaction in major	1.95	4.93	3.91±.50
Curriculum satisfaction	1.40	5.00	3.64±.50
Relationship satisfaction	1.33	5.00	3.44±.79
General satisfaction	1.00	5.00	3.91±.73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2.33	5.00	4.36±.61
Self-esteem	1.50	5.00	3.84±.59
Self-efficacy	1.62	4.08	3.44±.51

<Table 3> Correlation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maj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N=223)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major	Self-esteem
Satisfaction in major	.56(<.001)		
Self-esteem	.61(<.001)	.43(<.001)	
Self-efficacy	.54(<.001)	.74(<.001)	.40(<.001)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major (N=223)

	β	Additional R^2	R^2	F	p
Step 1					
Professional self-concept	.56		.31	97.90	<.001
Step 2					
Professional self-concept	.47	.31	.33	51.90	<.001
Self-esteem	.15	.01			
Step 3					
Professional self-concept	.48	.32			
Self-esteem	.14	.01	.33	34.60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times Self-esteem	.03	.00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성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족($r=.56$), 자아존중감($r=.61$), 그리고 자기효능감($r=.5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공만족은 자아존중감($r=.43$)과 자기효능감($r=.7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40$)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 분석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문직 자아개념과 종속변수인 전공만족을 회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제하였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나타

고, 세 번째 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상호작용 항의 β 값은 .0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문직 자아개념과 종속변수인 전공만족을 회귀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제하였을 경우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상호작용 항의 β 값은 .0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5점 만점에 3.04점으로 서원희(2006)의 연구결과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major (N=223)

	β	Additional R^2	R^2	F	p
Step 1					
Professional self-concept	.56		.31	97.90	<.001
Step 2					
Professional self-concept	.55	.31	.32	49.71	<.001
Self-efficacy	.07	.31			
Step 3					
Professional self-concept	.55	.31			
Self-efficacy	.07	.32	.31	33.08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times self-efficacy	.03	.00			

(2.70점)보다 더 높았다. 영역별로는 의사소통 3.16점, 만족감 3.12점, 그리고 전문적 실무 2.89점의 순으로 나타나 서원희(2006)의 연구결과에서의 의사소통 2.94점, 전문적 실무 2.75점, 만족감 2.62점, 강현옥(2009)의 4년제 간호학생과 3년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3.00점, 전문적 실무 2.70점, 만족감 2.50점이었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의사소통’ 영역이 가장 높은 것은 일치되었지만 ‘전문적 실무’ 영역이 가장 낮았던 것은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상이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이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전문직과 의사소통 관련과목을 이미 이수했거나 학과 내 선배와 후배 연결 모임제도의 활성화, 경쟁과 같은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의사소통영역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높았지만 아직은 전문직업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이어서 전문적 실무영역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이 부족하여 만족감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낮았던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전공만족은 5점 만점에 3.91점으로 문인오와 이경완(2010)의 연구에서의 3.61점,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미현과 신미아(2006)의 연구에서의 3.79점에 비해 전공만족도는 더 높았지만 전공만족 문항 중에서 간호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4.36점으로 가장 높았던 것과 ‘관계만족’이 3.44점으로 가장 낮았던 결과와는 일치되었다. 이것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교수-학생 관계만족 정도는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간호학생의 관계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멘토링(mentoring) 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교수와 학생의 밀착된 심층지도로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지도를 통한 학생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최정과 하나선(2009)의 연구결과에서 평균 3.58점, 정미현과 신미아(2006)의 4점 척도로 구성된 연구도구로 측정된 결과에서의 2.89점보다는 다소 높았으며, 황성자(2006)의 4점 척도로 측정된 연구결과에서의 3.10점보다는 다소 낮았다. 대체로 간호학생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간호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자아존중감을 잘 유지시켜 주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황성자(2006)의 3.52점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성공적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가족, 교사, 동료, 친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대학생활 동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 성취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특히 학과교수와 선배의 간호 관련경험에 관한 언어적 설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Bandura, 1977).

그리고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세 변수들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사회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권영미와 윤은자, 2007)와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되었다(정미현, 신미아, 2006; 하나선, 최명숙, 2004; 황성자, 2006). 또한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는 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대학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인데, 본 연구결과 그 조절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간호학생에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면 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권영미, 윤은자, 2007; 정미현, 신미아, 2006),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 및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임을 확인한 연구결과(박선영, 2003),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진과 박현주(2009)의 연구결과,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장희정 등, 2007)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최은영, 김건호, 2000)와도 일치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및 학업성취도와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전문직 자아개념 발달은 간호전문직의 교육, 실무와 관련된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자아전환 과정으로 공식적인 학교 교육기간 동안 발달하게 되므로 간호학생은 앞으로 간호사로서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여주는 것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럼 참여에 시간, 노력,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호학과 교수들은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지도자다운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되어 그들의 전문직 사회화 적응을 도와야 한다(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2011). 그리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 및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카리스마를 높여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하나선, 최명숙, 2004). 그 이유는 카리스마는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조직생존에 중요한 가치를 구축시켜 주므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리더십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자원봉사활동인데, 박소연 등(2011)의 연구결과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후에 자존감이 2.23점, 자기효능감은 2.81점이 향상되었으므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이타주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사회성 발달의 계기가 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도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과 지원, 인센티브 제도의 적극 활용 방안 등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오효근, 2005).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의의는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절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의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규범,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정립과 발달을 위한 간호교육의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김경희, 김계하, 2009)과 ‘자아존중감 향상법’을 기초로 개발된 자존감증진 인지행동프로그램(주혜주, 조경미, 2005; McKay & Fanning, 2000)의 활용, 자원봉사활동 및 리더십 개발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간호

학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충북 J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223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과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개별적 단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수준을 검증하던 연구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 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대학 재학 시기에 간호전공 관련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 개발,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여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소속감과 전공만족을 높이고, 특히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과 전공만족을 높여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이외에 다른 조절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강현옥 (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 만족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권영미, 윤은자 (2007). 간호학생의 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3(3), 285-292.
- 김경희, 김계하 (2009).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이 여자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과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8(4), 431-438.
- 김인순 (2009).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 이직의도와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 *간호행정학회지*,

- 15(4), 515-526.
- 문민오,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 박선영 (200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2011).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11(2), 376-384.
- 서원희 (2006). *간호전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송경애, 노춘희 (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 94-106.
-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신체상,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2), 278-286.
- 오효근 (2005). 자원봉사의 자발성이 자원봉사활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 *학생생활연구*, 9, 47-75.
- 이윤미, 김복미 (2008).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에 미치는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대한간호학회지*, 38(4), 603-611.
- 장희정, 양순옥, 이명옥 (2007). 전문간호사 요구에 따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개념. *기본간호학회지*, 14(1), 110-119.
- 전병제 (1974). 자아개념이론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 29, 103.
- 정미현, 신미아 (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 주혜주, 조경미 (2005). 자존감증진 인지행동프로그램이 간호과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4(3), 260-267.
- 최은영, 김건효 (2000). 신장실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2(3), 345-355.
- 최정, 하나선 (2009).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 및 전문직 사회화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5(1), 54-63.
- 최진, 박현주 (2009).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5(1), 37-44.
- 하나선, 최명숙 (2004). 간호학생의 리더십 유형과 자아 존중감, 임상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1(1), 13-21.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Arthur, D. (1995).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15, 328-335.
- Arthur, D., & Randle, J. (2007).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rom 1991-2006.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3), 60-6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19-215.
- Barron, D., West, E., & Reeves, R. (2007).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 Research Policy*, 12, 46-51.
- Mckay, M., & Fanning, P. (2000). *Self-esteem: A proven program of cognitive technique for assessing, improving, and maintaining your self-esteem* (3rd ed.). New Harbinger Pub.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rer, M., Madu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Kim, Myoung Sook¹⁾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223 nursing students by means of a questionnair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howed moderating effects i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Conclusion:** This finding suggests the importance of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Therefor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promote self-esteem,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for satisfaction in the nursing major.

Key words :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Self-esteem, Self-efficacy, Stud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Semyung University in 201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you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117 Semyungro, Jecheon, Chungbuk 390-711, Korea

Tel: 82-43-649-1354 Fax: 82-43-649-7052 E-mail: 629arin@semyung.ac.kr